



LG 박해민이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9회 말에서 2사 안타를 치고 있다. 박해민은 현재 프로야구에서 가장 오랜 기간 개근을 이어 가는 선수다. 2022년부터 4시즌 연속 전 경기 출장을 노리고 있다.

전 경기 출장 '철인' 도전... 올한 6명뿐

실력·성실함·꾸준함의 대명사 일찍 찾아온 더위에 컨디션 뚝 노시환·레이에스 전 경기 선발 박해민은 4시즌 연속 도전 중 최고 기록은 최태원 1009경기

프로야구 출장 기록은 선수의 실력, 성실함, 꾸준함, 자기 관리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지표다. 팀이 144경기를 치르는 동안 체력 저하와 부상을 딛고 전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몇 명 되지 않는다. 지난해엔 딱 5명이 144경기에 출장했고, 2023년엔 LG 트윈스의 외야수 박해민이 홀로 개근상장을 받았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올 시즌에도 모든 경기에 출전 도장을 찍은 선수는 손에 꼽힌다. 10개 구단을 통틀어 6명뿐이다. 키움 히어로즈 송성문(82경기), 롯데 자이언츠 빅터 레이에스(80경기), 삼성 라이온즈 르윈 디아즈와 LG 박해민(이상 79경기), 한화 이글스 노시환(78경기), NC 다이노스 김주원(76경기)이 올 시즌 팀이 치른 모든 경기에 출전했다. 이 중 모든 경기를 선발로 나선 선수도 있다. 노시환과 레이에스다. 두 선수는 교체



출전 없이 모든 경기를 처음부터 뛰었다. 특히 노시환은 5월21일 NC전에서 지명 타자로 나선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경기에서 모두 3루수 수비를 봤다. 박해민은 현재 프로야구에서 가장 오랜 기간 개근을 이어가는 선수다. 2022년부터 4시즌 연속 전 경기 출장을 노리고 있다. 그는 삼성에서 뛰던 2021년 10월13일부터 올해 6월까지 524연속 경기 출장 기록도 이어 가고 있다. 현역 최다 기록이다. 박해민이 올 시즌 남은 65경기에 모두 출전하면 연속 출장 기록을 589경기로 늘릴 수 있다. KBO리그 역대 최다 연속 출장 기록엔 아직 멀었다. 이 기록은 최태원 현 경희대 감독이 갖고 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쌍방울 레이더스와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에서 1009경기 연속 출장 기록을 썼다. 박해민이 최태원 감독의 기록을 깨기 위해선 앞으로 485경기에 연속으로 출전해야 한다. 투수 중에서 올 시즌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롯데 정현수다. 팀이 치른 80경기의 절반 이상인 49경기에 나섰다. 한편 KBO 올스타전 '컴투스프로야구 홈런 데비' 출전 후보 선수 12명이 공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올스타전 출전 선수 중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올 시즌 8개 이상의 홈런을 친 선수들을 후보로 선정했다"며 "이들은 팬 투표를 통해 올스타전 홈런 데비 출전권 획득을 노린다"고 전했다. 후보에 오른 선수는 르윈 디아즈, 구자욱(이상 삼성 라이온즈), 오스틴 딘, 박동원(이상 LG 트윈스), 최형우(KIA 타이거즈), 송성문, 이주형(이상 키움 히어로즈), 안현민(Kt wiz), 김현준(NC 다이노스), 최정(SSG 랜더스), 빅터 레이에스(롯데 자이언츠), 문현빈(한화 이글스) 12명이다. 팬들은 온라인 투표로 홈런 데비에 출전할 선수를 직접 뽑는다. 투표는 1일부터 3일 오전 10시까지 KBO 올스타 홈페이지와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되고, 득표수 상위 8명이 출전권을 얻는다. 하위 4명은 탈락한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연봉 12억 원' KB 황택의 V리그서 가장 비싼 남자

5년 만에 1위 탈환... 여자부 양효진·강소희 동반 연봉권

프로배구 KB손해보험 세트 황택의(사진)가 5년 만에 '연봉킹' 자리를 되찾았다. 한국배구연맹(KOVO) 30일 2025-2026시즌 선수 등록을 공시하며, 보수 총액(연봉+옵선) 순위도 공개했다. 황택의는 최근 연봉 9억 원에 옵선 3억 원이 걸린 연평균 12억 원짜리 자유계약선수(FA) 잔류 계약을 하며 2025-26 V리그에서 가장 비싼 선수가 됐다. 2020-21시즌 연봉 7억3000만 원으로 이 부문 1위를 했던 황택의는 5년 만에 연봉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 시즌 보수 총액 10억8000만 원(연봉 7억5000만 원+옵선 3억3000만 원)으로 이 부문 1위였던 한선수(대한항공)는 2025-26시즌에도 같은 금액을 수령하지만, 황택의가 '12억 원 시대'를 열어 2위로 밀렸다. KB손해보험과 FA 계약을 한 임성진은 보수 총액 8억5000만 원(연봉 6억5000만 원+옵선 2억 원)으로 3위, 정지석(대한항공)이 보수 총액 8억2000만 원(연봉 6억 원+옵선 2억2000만 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현대캐피탈 허수봉(연봉 8억 원)과 KB손해보험 나경복(연봉 6억 원+옵선 2억 원)은 총액 8억 원으로 공동 5위에 자리했다.



여자부에서는 현대건설 미들 블로커 양효진과 한국도로공사 아웃사이드 히터 강소희가 보수 총액 8억 원(연봉 5억 원+옵선 3억 원)으로 '연봉퀀' 왕관을 함께 썼다. 양효진은 2024-25시즌 종료 뒤 총액 8억 원에 현대건설과 FA 잔류 계약을 했다. 지난 시즌 6억 원(연봉 4억 원+옵선 2억 원)보다 총액이 2억 원 올랐고, 보수 총액 순위도 5위에서 공동 1위로 올랐다. 2024-25시즌 김연경(은퇴)과 8억 원으로 보수 총액 공동 1위를 차지했던 강소희는 이번 시즌에는 양효진과 공동 1위가 됐다.

日 수비 레전드 이하라, K리그2 수원 코치로

프로축구 K리그2(2부) 수원 삼성이 1990년대를 풍미한 일본 레전드 이하라 마사미(57·사진) 전 가시와 레이솔 감독을 코치로 영입한다. 수원 구단 관계자는 1일 "변성환 감독을 전술적으로 보좌할 국내의 지도자를 찾다가 이하라 코치를 영입하게 됐다. 비자 발급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이주 안으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하라 코치도 홈페

이지를 통해 수원 코치진 합류 소식을 알리면서 "첫 해외 도전, 새로운 도전이지만, 내가 필요한 곳이 있음에 감사하며, 팀의 목표 달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하라 코치는 한국 팬들에게 매우 익숙한 일본 축구인이다. 일본 축구가 부상하며 한국을 앞설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1990년대 일본 대표팀 포백 수비라의 핵심이었다.



북한 보위부 비밀 요원의 자유·인권·민주주의 향한 여정



- 신문사 추천도서
- 한국일보
- 조선일보
- 문화일보

세 번의 탈북·세 번의 체포... 中 연길 감옥·北 보위부·안전부 감옥 수기 희망 잃은 땅을 떠나며 피로 쓴 원고... 폭정 종식 앞당기는 무기 되길

"이 글이 북한에 복수할 유일한 길"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천만 북한 노예들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예주와 사이 좋게 지내려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평범한 인텔리 한원재 씨가 남긴 이 글을 통해 북녘 주민들의 절규에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응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길 바란다. -태영호(전 북한외교관)

질식할 것 같은 고통과 당장 닥칠 것만 같은 죽음의 공포가 배인 저자의 거친 숨결이 행간마다 강렬하게 녹아있다. 목숨과 바꾼, 중국과 북한의 감방에서 절규하며 피로 쓴 이 수기가 노예공화국 북한의 폭정 종식을 앞당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길 소원한다. -이영환(전한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노예 공화국 북조선 탈출

한원재 지음 | 312쪽 | 15,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